전 시민이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1998. 9. 15 창간

춘천 성시

vol.202

201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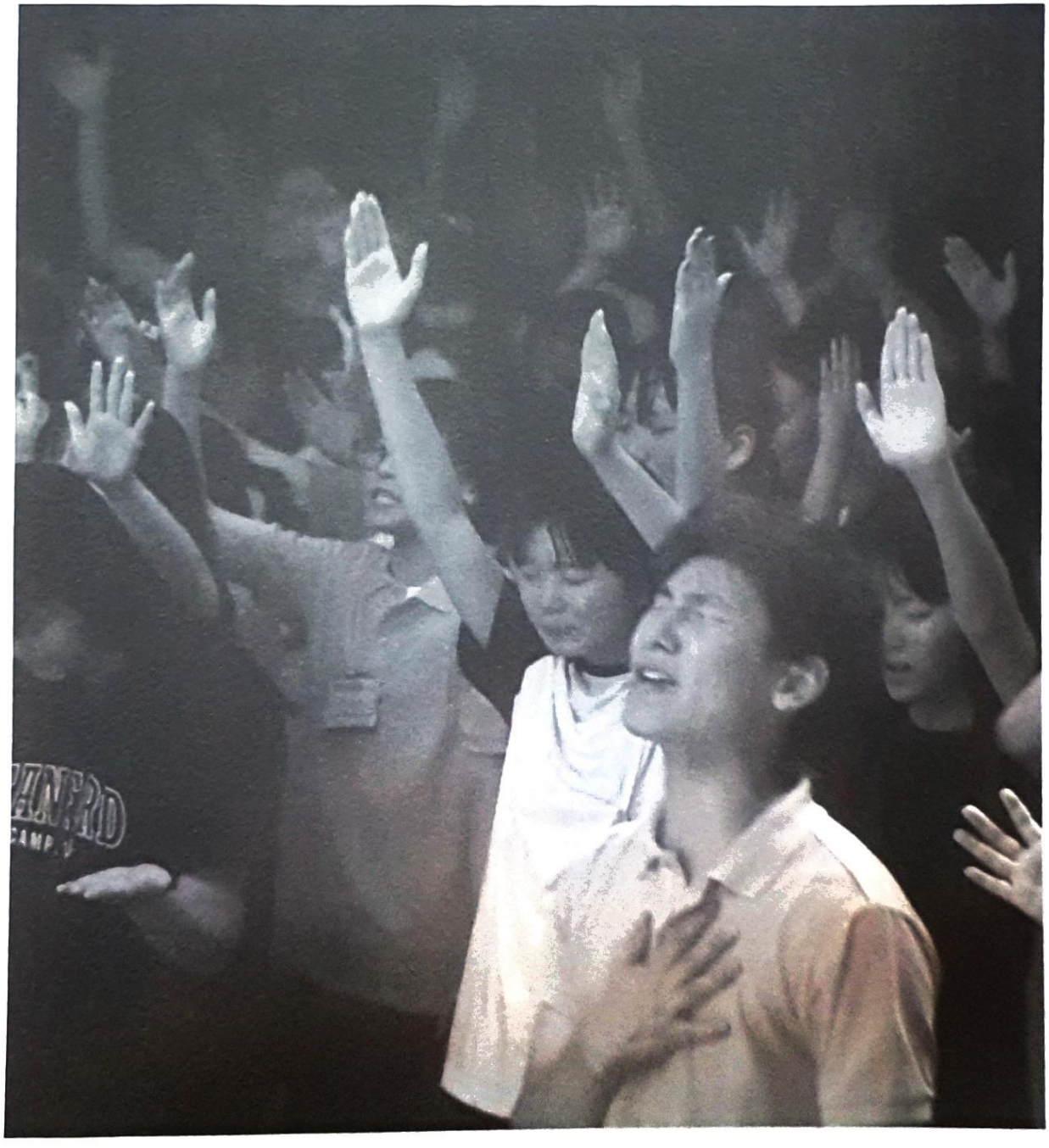
특집 2015 성시선교대회
선교 인도네시아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기관탐방 두드림 아카데미
영화이야기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세대 청소년들은 무엇을 주 앞에 구할까

시대의 무거움이 저들의 마음에 있지는 있을까

주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저들의 심령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소서

오는 세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부으셨던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소서

저들의 두 손이 주께 붙들려 있게 하시고

영혼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온 땅을 치유케 하소서

〈예스컴 여름수련회 사진〉

Editor's Letter

지난 달 22일에 교회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한 달 전부터 계획된 물놀이가 있었다. 몇몇 어린이들이 동그란 눈으로 묻는다. "오늘 전쟁 일어나는 데 물놀이 가요?" 나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우리 친구는 전쟁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극히 어린이 수준에 맞춰 진행되었지만,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일촉즉발의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겪으면서 어쩌면 이런 시대적 상황과 사건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통일교육을 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여겨졌다.

뒤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시대적인 상황을 외면한 채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월호 사건 때에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고 신학적으로 고민하며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할 좋은 기회였는데, 여전히 입을 다문채로 기회를 놓쳐왔다.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분향소를 방문하며, 촛불 추모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교회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교회가 해야 할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외면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만난 상황에 대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고민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상황과 동떨어진 진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분단조국에 살고 있고, 이제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와 닿지 않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려 들지 않는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을 위한 통일 운동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을 포함한 온 국민의 통일 운동이 되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통일 운동이 되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선교나 성시화 운동도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시간 머물게 하는데 집중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예수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할 때라고 믿는다.

편집장 최영조

성시 창간 1998. 9. 15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지용찬,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성낙환, 안세현,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디자인
로딘어스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 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T 033.256.1260~1 F 033.257.1260 E holycc1972@hanmail.net

※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 성시매거진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Contents

2015.9
vol.202

003 에디터 레터

006 캘린더
9월 소식을 한눈에

008 특집 1
2015 성시선교대회

011 칼럼
이 때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012 특집 2
고(故) 김주환 목사 추모 글

016 성시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로!

020 선교
인도네시아 최원금 선교사

023 시
나 하나 꽃 피어

024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026 통일
쥬빌리 44차 춘천모임

028 기획
신천지 OUT

030 기고
강원학교인권조례

032 시사
할랄

035 예향 / 만평
심수무성 /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036 예수안에서의 예술
Salvation 김복동 작가

038 기관탐방
두드림 아카데미

042 설교
힘차게 걸어갑시다

044 건강이야기
섬유근통 증후군

046 예수의 미소 61
기사식당

048 영화이야기 99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050 알려드려요
소모임,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052 8월 이야기
8월 중에 있었던 행사를 리뷰합니다

056 음악이야기
록 오페라 슈퍼스타 예수그리스도

060 후원자 명단
춘천성시화운동본부 8월 후원자 명단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9
2015

◆ 이달의 기도제목

· 매월 발간되는 "춘천성시"매거진이 춘천 내 교회와 성도들을 연합하고 성시화를 이끄는 탁월한 매개체로 쓰임받게 하소서. 모든 편집위원들과 기자단, 제작을 담당하는 로딘어스가 주께 귀하게 쓰임 받게 하소서.

· 성시화운동의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모금운동에 춘천교회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춘천 및 한국, 열방을 섬길 수 있는 SEED MONEY가 준비되게 하소서.

· 춘천내 기업주소록 패밀리북과 앱인 "춘천이 좋다"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춘천 크리스천 기업주들의 연합과 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SUNDAY	MONDAY	TUESDAY
		1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4시 주향교회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저녁 7시, 동부교회
6	**7**	**8**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4시 주향교회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저녁 7시, 동부교회 [어린이전도협회] ~11월 24일 새소식반강습회, 춘천지회사무실 오전 10시, 오후 7시
13 [기드온춘천캠프] 순방예배 오전 11시 강촌감리교회	**14**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45차 저녁 7시 15분, 주향교회 [IVF] 제자학교 개강 춘천 IVF회관	**15**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4시 주향교회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저녁 7시, 동부교회
20 [기드온춘천캠프] 순방예배 오전 9시, 오전 11시 안디옥감리교회, 동부교회	**21**	**22**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4시 주향교회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저녁 7시, 동부교회
27 추석	**28**	**29**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 시편 125편 1~2절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성시매거진] 203호 편집회의 오후 2시, 주향교회 [IVF] 캠퍼스사역위원회 춘천 IVF 회관	**3** [CCC] 전국선교전략회의 [JDM] 개강채플 춘천비전센터	**4** [CCC] 개강채플 저녁 7시, CCC회관	**5** [예스컴] 학교기도모임지도자 오후 6시, 예스컴센터
9 [성시본부] 성시본부 이사회 [예수전도단] ~11일 말씀세미나 "신약개관" 7-10시, 효자감리교회	**10** [전도세미나] N+ 교회사역연구소 오전 10시, 주향교회	**11** [CCC] 캠퍼스친구초청 저녁 7시 , CCC회관	**12**
16 [춘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대회 오전 10-4시, 문화예술회관	**17**	**18** [CCC] 캠퍼스친구초청 저녁 7시 , CCC회관	**19** [예스컴] 예스컴프레이즈 오후 6시, 춘천중앙성결교회
23	**24**	**25** [CCC] 캠퍼스친구 초청 저녁 7시, CCC회관	**26**
30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2015 춘천성시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춘천성시선교대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천국 잔치이자 축제이다. 춘천성시선교대회는 모든 교회들과 기관, 선교단체들이 함께 춘천이 하나님의 도시(Kingdom City)가 되도록 전 복음을(Whole Gospel) 전 교회가(Whole Church) 전 시민에게(Whole Citizen) 전하는 선교 대회이다. 더 나아가 분단도의 수부도시로서 남북교류 및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사명을 공유하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춘천의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선교대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교단, 교파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공동의 목표인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며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이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어느 교회이든, 단체이든지 간에 공동체가 세워져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질의 신앙과 합의된 목표와 합리적 경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춘천성시화운동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 동질의 신앙이다. 1972년에 춘천성시화가 시작이 되고, 1996년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이 되면서 지난 40년 동안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데에는 공감을 갖고 달려왔기에 적어도 춘천에서는 성시화에 대한 다른 이견(異見)이 없는 것 같다. 둘째로 합의된 목표이다. 성시화를 말하더라도 사람마다 각자 나름의 생각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즉 성시화운동이 어느 하나를 갖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아직 춘천의 성시화가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으로서는 모호하다. 어떤 분들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지지부진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직 선명하지 않다고 본다.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와 전략이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에너지 소모를 덜하게 만들 것이다.

감사한 것은 2015년 들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춘천성시화 이사회 모임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발전적이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열린 마음과 개방적 논의 구조를 갖고 합의된 목표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진일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시화운동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아직 충분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많은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2015년 춘천성시화선교대회로부터 몇 가지 지침을 정했는데, 다음과 같다.

1. 성시선교대회는 매년 10월 첫째 주에 한다.

매년 선교대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타 기관과 연합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매년 10월 첫 주간으로 확정해서 모든 교회나 기관 및 선교 단체들이 미리 알고 준비하여 참여하기에 용이하게 한다.

2. 성시선교대회는 모든 교회와 기관, 선교 단체가 함께 연합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성시선교대회는 전 기독교 단체가 참여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연합과 축제가 되도록 한다. 장년들뿐만 아니라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가 함께 참여하는 다음 세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3. 춘천성시대회는 춘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도록 한다.

춘천성시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 이를 개발하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갖고 2015년도 춘천성시선교대회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다.

첫 번째 연합성회이다.

· 10월 4일(주일) 장년 중심의 집회로 이동현목사(광주평화교회)

· 10월 5일(월) 청소년 중심의 집회로 다니엘김선교사

· 10월 6일(화) 청년 중심의 집회로 김용의선교사(순회선교단)

· 10월 7일(수)에는 정요한집사 공연 및 간증집회(전 김정일악단 단장)

두 번째는 어린이 꿀 잔치이다.

· 10월 9일(금) 오후에 어린이전도협회 주관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다.

세 번째는 블레싱 춘천이다.

· 10월 9일(금) 저녁에 모든 교회와 기관 및 선교단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 축복하며 성시시민상을 시상하고, 체육대회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네 번째는 성시 이사장배 축구, 족구, 농구대회이다.

· 10월 8일(목)~9일(금) 양일간 교회 축구팀과 지역 축구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구 및 족구, 농구 대회를 연다.

다섯 번째는 영화상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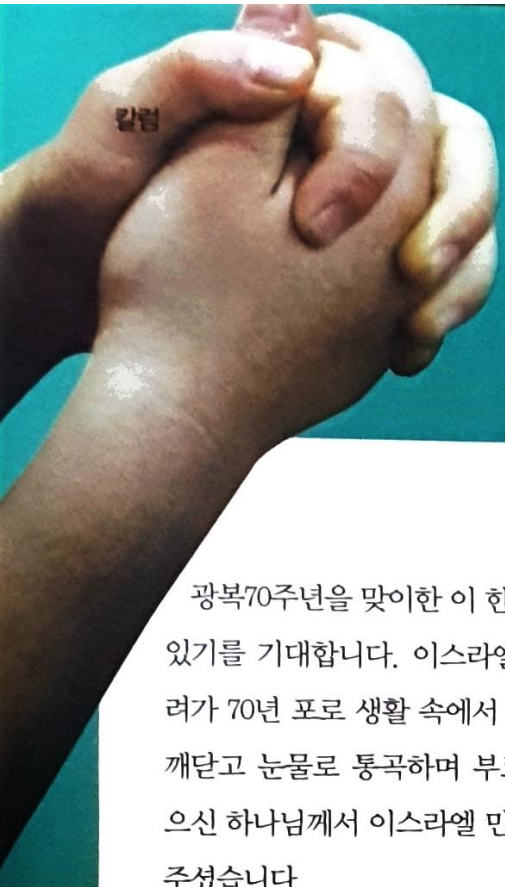
· 믿음을 지키는 기독영화인 "신은 죽지 않았다!(GOD is not dead)"를 상영한다.

여섯 번째는 홀리 바이크 퍼레이드이다.

· 10월 10일(토)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춘천을 사랑하며 호반을 함께 라이딩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부적인 진행은 사정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 있지만 성도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장년과 다음 세대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성시선교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병철



칼럼

이 때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광복70주년을 맞이한 이 한반도에 희년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 했음을 깨닫고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었더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년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고, 당파 싸움, 권력 암투, 쇄국정치, 당리당략에만 혈안이었던 소치로 인하여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선열들이 수많은 목숨을 잃었고, 갖은 수모를 당한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65년 전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아 국토는 두 동강이 나고 폐허와 기근에 허덕이는 차마 생각조차 하기 싫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은 이곳 남녘땅은 회개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유와 더불어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먹고 입을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려야 할 이 때에, 소수의 개혁좌파 무리들은 과거로 회귀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주변 정세는 변하지 않고 있고, 일본 아베정권은 과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평화 헌법 개조를 시도하며 주변 약소국들을 위협하는 전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동족인 북녘 땅에서는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는 김정은과 군부가 불바다 운운하며 지금도 국지적인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평화적인 통일을 노래하고 있으나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등 곳곳에서 개혁, 인권, 민주주의를 빙자하는 좌파 개혁세력들이 이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이끌려 하고 있습니다. 또 메르스보다 수백 배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하는 동성애를, 소수 인권 운운하며 동조하여 이 민족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려 하고 인간의 영혼을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에 이끌리는 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 때는 분연히 일어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바르게 세워진 사회가 되도록, 다음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업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전쟁 없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 한반도에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 위경을 바라보면서 구국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가슴에서부터 울려오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29:12~13)"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국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의 기도를 본받는 이 민족 되길 소원합니다.

임운식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와이신협 이사장)



▲ 춘천을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고가는 故 김주환 목사

故 김주환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원로목사, 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전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불꽃처럼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

김주환 목사님!

며칠 전 찾아뵈었을 때만 해도 힘 있게 손을 꼭 잡아 주셨던 체온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렇게 빨리 하늘나라로 가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건강하셨고, 잘 식사하셨고, 걷기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영육 간에 건강한 삶을 사시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전도에 힘쓰시기 위해 목사님의 간증이 담긴 전도지를 손수 수 만장을 만들어 직접, 간접으로 전도에 힘쓰셨을 뿐 아니라 한 달에 한번 본 교회 설교를 하시는 외에 농촌의 미자립 교회를 찾아 교회를 돕고 사모님들을 위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여 많은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 후임 목사 선정에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오로지 열정과 믿음을 보시고 이수형 목사님을 모셔와 교회가 더욱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시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43년 전, 교회 개척을 위해 처음 춘천에 오셔서 18평 2층 방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로지 믿음과 성실로 오늘의 순복음춘천교회를 이룩해 놓으셨습니다.



▲ 개척당시 효자동 2층 18평 건물

목사님께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계셨을 때 부장 집사님을 따라 낙지잡이를 따라 나섰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고비에 이르렀을 때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랑에서 건져주시면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기도로 구원을 받아 순복음신학교에 입학했으나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새 소망 소년의 집' 지도교사로 쓰임을 받으며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와 달라는 곳이 있으면 가겠다는 기도 후 정선 예미에서의 손길에 따라 예미순복음교회를 개척, 1년 만에 1백 명이 넘은 성도를 모아 예배당도 건축하셨으며 춘천에 오셔서 18평 2층을 빌려 개척예배를 드린 후 얼마 안 있어서 교회 신축대지를 마련, 4차에 걸친 증축을 통해 30년간의 효자동 시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넓은 주차장 없이는 복음적 교회성장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만천리로 옮겨 오늘의 순복음춘천교회를 이룩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만천리 땅을 구입할 때 5병2어를 드리는 심정으로 솔선수범하여 먼저 거금을 내놓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15억이 넘는 헌금 작정으로 오늘의 만천리 교회를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적십자총재를 역임하신 이윤구 박사를 초청하여 설교를 들으시는 중 북한에 결핵환자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자신이 예미목회 때 결핵으로 고통 받으시던 일을 기억하시고, 「북강원도 결핵 어린이 돕기운동」을 벌여 결핵약 1만 명분 3억 원을 모금하여 북강원도에 약품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도와 강원일보가 선정한 DMZ평화상을 수상하시는 영예도 얻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혜민 사랑의집」을 창립, 오늘까지 30만 명이 넘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해 오고 있습니다.

한 10년만이라도 더 살아 계신다면 10년 후의 발전한 교회 모습도 보시고 모범적인 원로목사님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실 터인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필요해서 빨리 불러 가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신 사모님은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계시면서 우리도 만날 날을 기다리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목사님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순복음춘천교회 원로장로 조남진

고(故) 김주환 목사님을 사모하면서...



고향 옛 친구가 가슴이 터집니다. 왜 좋기만 하신 목사님이 온 교회를 울게 하십니까?

목회 후임자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신 목사님! 은퇴하고 교회가 부흥된 것을 좋아하시더니 조금 더 은퇴의 행복을 누리시지 왜 그렇게 서두르셨는지요? 이렇게도 빨리 가시려고 은퇴를 서두르셨나요? 온 춘천시민이 함께 가슴앓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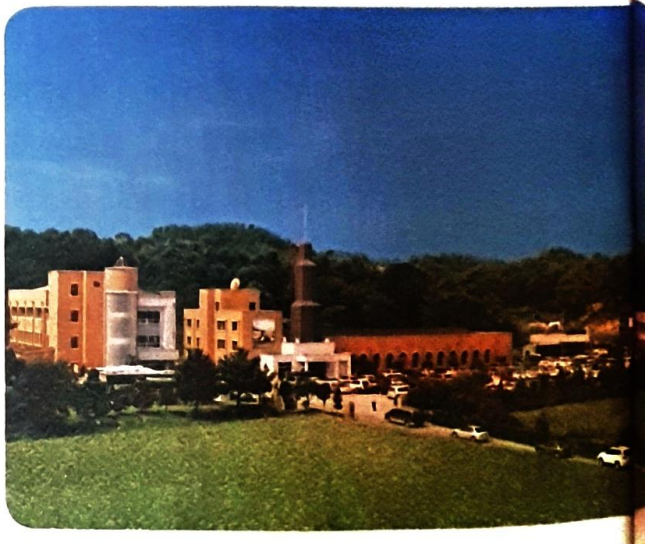
어려운 시국과 가난한 환경 중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하시어 고향 교회의 자랑이 되셨던 김 목사님! 아버지 얼굴을 알 수 없도록 조실부모하고 배움에 한이 되어서 애태우시더니...,

목사로 부름 받아서 일편단심 충성하셨습니다.

개척부터 함께 하신 조남진 장로님이나 함께 헌신한 성도들을 뒤에 두고 은혜로운 은퇴생활을 소원하시더니...

김 목사님은 참 멋진 목회자였음을 존경합니다. 장손으로 홀 할머님, 청상과부 어머님을 모시고 효자 효부로 극난의 고난들이 훈련이 되어 복음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하니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일평생을 해로하면서 목회사역을 함께 하셨던 고마우신 사모님을 홀로 두고 입원하신지 46일 만에 조용히 혼자서 떠나신 것이 섭섭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병문안도 전화도 못 드렸는데 인사도 없이 조용히 가신 것이 섭섭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한 욕심이 많으시더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을 존경합니다.

항상 웃으시고 모든 일을 아름답게만 하신 김 목사님을 어디서 다시 찾아 만날 수 있을까요? 새 성전 지으시고 성전 안에 작은 텐트를 치고 100일 작정기도를 하셨던 김 목사님! 어떻게 이런 성전을 두고 떠나십니까?

이제는 모든 염려를 놓으시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생동안 진리 말씀으로 영혼을 잘 가르쳐 주셨으니 온 성도가 받은 은혜를 책임지고 목사님이 원하신 것을 성취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하게 양육해 놓으신 자녀들이 홀로 남은 사모님을 책임지고 효도할 것입니다. 울었지만 주님이 김 목사님을 쓰신 것을 확실히 보았으니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하늘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향친구 황영희 장로



주일학교 Sunday School 를 교회학교 Church School 로!

차성도 (강원대학교 교수, 전 V-School 교장)

인본주의 교육인가 아니면 기독교 교육인가의 선택만 주어졌다.

국가는 모든 공교육에서 종교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공교육이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교육받는 사람의 특성, 진리의 성격 등은 모두 종교적인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공교육은 모든 과목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주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무종교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인본주의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의 선택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 속에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로 구조화된 사고의 틀이 주일학교를 통해 변화될 수 있을까? 세상의 교육 시스템에 우리 자녀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 후에 기독교적 교훈을 덧붙이는 정도로는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은 불가능하다.

사탄은 왜곡된 교육열을 이용하여 가정과 교회를 파괴한다.

사탄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강한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 사람들의 왜곡된 교육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어느 부모도 자녀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교육이 제자리를 이탈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공할만한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험생 가정의 살벌함, 조기 유학생들의 분리, 기러기 아빠의 방황 등에서 보듯이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또한 주일학교의 축소, 중고등부의 무관심, 청년대학부의 몰락 등과 같이 교육이라는 거센 회오리에 교회마저도 휩쓸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 안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마련이듯이, 제자리를 이탈한 교육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과 교회는 교육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회복될 수 있다.

대안(代案)교육이 아니라 원안(原案)교육으로 회복되어야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방을 따른 것인가? 의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예를 들어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제야 나팔을 울려서 적들을 대적해야했던 이스라엘은 이방의 왕들이 조직된 군대를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루는 것들을 보고는 '이방과 같이'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길 요구한다.(삼상 8장)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엄히 경고하시고 왕정 제도의 문제점들도 상세히 알려주었으나,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삼상 8:20)처럼 하나님의 통치대신 왕의 통치를 끝까지 고집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눈에 효율적으로 보이기만 하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방의 제도를 따라했던 전철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정 · 교회 · 학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시길 계획하셨지만, 성과와 효율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일임하면서 가정과 교육이 분리되었고, 신앙의 영역만 관여하겠다면서 교회와 교육도 분리되었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에서 멀어진 교육의 분업화(?)는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들어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안을 찾으면 차후에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할 따름이다. 대안이라는 차원으로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은 공교육을 대신할 대안(代案)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원안(原案)교육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원래 목표와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원안교육으로 회복되어야한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나는 것이고,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어떤 목표를 가졌는가에 의해 삶의 모든 태도 및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할 목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라"(엡 4:15)같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 이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계획하셨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처럼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하려면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야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각 마디가 연결되지 않고는 각 지체의 은사들이 흘러가지 않으며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과 공동체성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곳은 자녀교육이다.

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간과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바로 자녀교육이다. 왜냐하면 자녀교육은 부모라면 결단코 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핵심을 놓친 것이다. 자녀교육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면, 그 무엇보다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할 것도 바로 자녀교육이다. 교회가 아무리 공동체라고 외쳐도 가장 중요하다는 자녀교육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이자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교육에서 공동체성을 이루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보이겠다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의 성장이라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각 마디가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결국 부모가 바른 목표를 가져야만 바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면, 바른 방안을 실행하려면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교육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이고, 교육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성 회복의 문제이다.

주일학교(Sunday School)를 교회학교(Church School)로 회복하자!

일주일에 한번 성경만 교육하는 주일학교는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과목을 통해 전인적인 예수님의 제자들로 양육되는 교회학교로 회복되어야한다.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의 성경공부로 수십 시간을 철저하게 주입하는 인본주의 교육을 이겨낼 재주는 없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사지로 자녀들을 내몰고는 어떤 요행을 기대하는가? 지혜로운 농부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모내기를 하는 이유는 논에 직접 뿌려진 볍씨는 너무 연약하여 바람이 조금 불어도 견디질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까지는 철저하게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시킨 후에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해야한다. 교육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교육의 방안대로 회복되어야 한다. 대안교육이 활성화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과연 국내에 몇 개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야 기독교 교육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백 개나 되는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어 한 학교당 백 명을 수용한다고 해도 기독교 교육의 혜택은 만 명에 불과하다. 학교 부지 및 건물과 교사의 확보를 위해서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은 만만치 않다. 또한 매달 각 학생들이 수십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하는데도 대부분의 기독교 대안학교의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의 책임을 맡기셨지만 각 홈스쿨링 가정이 교육의 모든 요구들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의 어려운 점들을 동시에 풀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자녀교육의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성경의 원리까지 충족시키는 방안은 존재하는가? 그 해답은 홈스쿨을 기반으로 한 교회학교이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이미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실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여러 홈스쿨들로 이루어진 교육 공동체를 지원한다면,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동시에 해결된다. 교육 공동체를 이룬 교회학교에서는 학생은 우리들의 자녀이고, 교사는 우리들의 부모이며, 교실은 우리들의 가정 · 교회이다. 우리 조상들이 품앗이로 서로 도왔듯이 각 가정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소유로 서로를 섬김으로써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왜곡된 교육으로 황폐화된 가정과 교회는 원안교육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

명문학교의 입학과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교육에 매진하는 현실 속에서 부모가 움켜쥐고 있는 자녀교육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이며, 성경이 말하는 교육목표는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들이 왜곡된 교육의 목표를 바로 잡는 것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학교가 시작될 수 있는 최대의 관견이다. 각 가정들이 공동체적으로 서로의 부족들을 채운다면 시너지 효과로 현실의 높은 벽들도 함께 넘어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기독교 교육의 혜택을 나눌 수 있다. 더 이상 가정, 교회, 학교는 분리된 독립기관이 아니라 가정 · 교회 · 학교는 한 공동체이다.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교육의 문제점들은 공동체의 회복, 즉 '가정 같은 교회'와 '학교 같은 교회'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내리신 명령이므로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주님을 따르는 부모가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할 제자도는 자녀교육이다. 이 세상을 급진적으로 변혁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앞서서 원안교육의 회복을 시작해야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 황폐화된 가정과 교회를 원안교육을 통해 회복하실 것을 꿈꾸며...



떡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니 예배가 생겨나다

최원금 선교사
인도네시아

최원금 이현주 (두찬, 두영)선교사/기아대책 파송
밥퍼해피센터(북부 자카르타 Kelapa Gading에 위치)
62.811.809515 / wgchoi60@hanmail.net

▲ 먹을 것에 큰 격려를 얻는 아이들

인도네시아 최원금선교사(기아대책)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 빈민촌에서
모슬렘이 대부분인 이들에게 무료급식사역과 희망학교사역과 긴급구호사역을 펼치며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 무료급식사역

2002년부터 폐쇄된 기차역사에서 빈민들과 예배를 드리며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하며 떡과 복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달래 주었다. 2006년부터는 한 교회 주방에서 직접 밥을 만들어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현지인 Mawar Saron교회당 마당에 가건물을 지어 주방으로 사용하다가 2007년부터는 북부 자카르타 Kelapa Gading에 밥퍼해피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무료급식 사역에 임하고 있다. 현재는 1주일에 3회 매주 2,000명분(한번에 650-700명분)의 음식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 대상 지역은 자카르타 근교의 4곳 (Tanjung Priok, Muara Karang, Kali Jodoh, Manggarai지역) 의 절대 빈민들이 살고 있는 무허가 지역이다.

이 사역은 빈민들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복음을 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슬렘들이 대부분인 이들에게 밥으로 섬기는 것은 복음전도의 접촉점에 매우 유익하다. 빈민들은 지속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열려 한국 기독교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떡과 복음이 함께 갈 때 예배가 생겨나고 생명은 생명답게 살아나는 것을 실감한다. 따라서 무료급식사역은 현지인 빈민들에게는 큰 격려와 도움을 주고 있다.

● 빈민희망학교 사역



▲ 희망학교 아이들

자카르타 근교의 Tanjung Priok, Muara Karang, Kali Jodoh 이상 3곳의 학교는 약간의 기독교인과 대부분 모슬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이지만, 100% 기독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며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희망을 주고 있다.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라서 장차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어린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아이들의 가슴에 장차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갖고 있는 것을 본다. 빈민학교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무료급식사역은 당장은 배고픔을 달랠 수 있지만 장래에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빈민학교를 섬기고 있다. 방학 때마다 단기선교팀들이 와서 일주간씩 단기 봉사하는 사역들은 현지 빈민학교 학생들과 또한 단기선교팀 스스로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한다.

● 예배 사역

빈민촌은 회교도가 대부분이다. 사랑으로 무료급식 사역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 온 결과 빈민촌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서 빈민촌마다 빈민학교에서 주일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

● 긴급구호 사역

인도네시아는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등등으로 급하게 지원활동을 펴야 할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밥퍼해피센터를 긴급구호센터로 겸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5년 중부자바 족자 지진과 빵안다란 쓰나미, 2009년 수마트라 빠당 지진, 2010년 믄따와이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중부자바 머라피 화산폭발등등의 재해를 맞아 긴급구호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다. 2010년12월에도 족자 머라피 화산폭발현장에 가서 1,780가정에게 구호 활동을 펼쳤다. 또한 2013년1월에는 자카르타에 홍수피해를 입은 1,500가정에 긴급구호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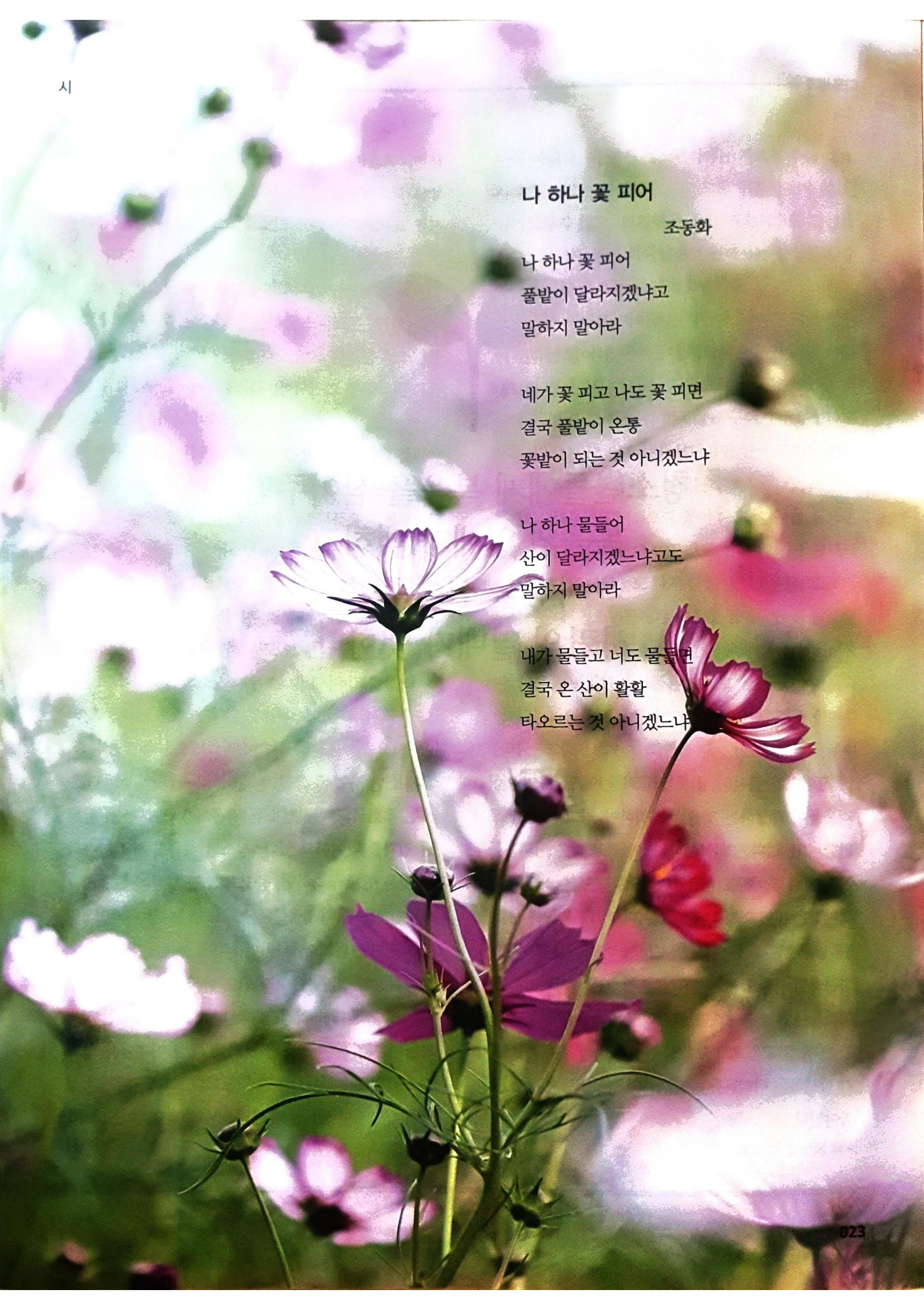


▲ 직업훈련센터 사역

● 직업훈련센터 사역

우리 빈민학교는 유치원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이 있다. 중,고등학교는 학비를 도와주며 일반학교를 다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교육환경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에서 능력있는 직원으로 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기간에 학교생활은 하지만 방과후 수업으로 해피센터에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실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 영어, 컴퓨터, 성품교육을 실시하여 실력을 갖추게 되면 회사에 취직도 잘 할 수 있게될 것이다. 현재 중학생 20명이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다. 다른 직원들보다 능력있는 사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매달 월급을 받게 되면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빈민촌은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카르타 도시빈민들이 믿음의 식구들의 격려와 용기를 얻어서 삶의 질이 바꾸어지길 원한다. 작은 힘이 합쳐지면 큰 힘이 된다. 그늘지고 배고프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다가가길 소망한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면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을 심어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랴' 는 속담은 작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중요한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행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더라도 중요함의 가치가 큰일이라면 전진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청소년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 사역의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장래를 고려하고 또한 현재 침체된 교회 교육의 현실을 바라볼 때 구더기가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감수하며 정성스럽게 장을 담가야한다.

청소년 사역에 대한 현재

현재 한국교회는 청소년 복음화율 3.8%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중고교 35명 정원이 한반이라 생각할 때, 3개의 반을 통틀어 교회 다니는 학생이 4명 정도 된다는 말이다.

수치상의 결과만을 가지고도 한국교회는 충격과 교회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갖는다. 그러나 청소년 사역자들이 체감하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어려움은 불과 10여 년 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교육체계는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컨대 학교별로 방학이 자율화되면서 수련회 날짜를 잡기가 어려워졌다. 집중적으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의지로만으로는 도무지 절제 할 수 없는 중독의 문화들(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음란문화 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깊숙이 자리를 잡아서, 그 중독의 문화들은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입시 위주의 교육열에 청소년 시기에 갖춰야 할 인격 양성과 성품의 발달 등의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밀려났다. 덕분에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면서 사역하는 청소년 사역자들은 그야말로 애들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 일들을 당하고 있다. 예컨대, 아이들은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도 언제나 징징거리면서 다른 교회에서의 '청소년 대우' 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 수련회에서는 순교까지 할 것처럼 보이는데, 폐회예배가 끝나면 컴퓨터 초기화 하는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실망과 좌절의 감정도 허다하게 느낀다.

자라는 아이들

그러나 너무나 신비로운 사실은 그 와중에서도 아이들은 자란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영적 아이의 상태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 자란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면, 너무나 신비롭게도 언젠가는 그 독의 빠진 밑이 스스로 치유되어서 견고한 독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청소년들은 아직 완성된 성인이 아니다. 이 말은 청소년기에는 가르쳐 주는 대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귀찮아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 청소년이다.

또 다른 의미로, 아이들은 자란다. 나이가 먹어 성인이 된다는 말이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 한 사람 한사람을 구더기가 무섭다고 복음과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집의 정원에 꽃을 심으면 꽃이 나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란다.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무성해진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면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을 심어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만, 그들을 방치하면 그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주는가는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다.

교회가 청소년들을 품고 거룩한 영향력을 지닌 성인으로 양육해내는 것은 작금의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을 품고 온전한 양육을 위해 수고해야한다. 마치 가정의 풍성한 식탁을 위해 수고로이 장을 담그는 것처럼 청소년 사역은 한국 교회 장래에 대한 투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가치 있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스컴 길선희 목사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44차 춘천모임 강의를 정리한 글입니다.

화 목 제

역대상21장 1~30절

백주석목사 (광주포도원교회)

본문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나온다. 그동안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 승승장구하였고 이스라엘은 강성대국이 되었다. 이즈음에 사탄이 다윗아 너 참 대단하다 네 나라의 군대 숫자가 몇 명이냐 궁금하지 않느냐하며 이렇게 충동한 것이다. 사무엘하 24장은 같은 본문 배경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다윗을 격동하셨다고 되어 있다. 종합해서 보면 이스라엘과 다윗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을 쳐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 시험하게 하신 것이다. 시험은 믿음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시험이 없으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다. 우리 믿음의 진위여부와 깊이를 보시기 위해 중요한 고비마다 시험하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좋은 일, 궂은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다윗이 군대를 계수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겨 이스라엘을 치신다.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내가", "내 것"이라는 교만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바로 치고 들어오신다. 3일간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이런 저주가 그 땅에 내린 것이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중요하다.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백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치시라고 하며 회개한다. 이에 선견자 갓을 통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였다. 오르난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뽑고 서있는 곳이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눈에는 현상세계만 보이지만, 사실 현실은 영의 세계의 그림자이다. 천사가 칼을 빼고 있는 동안 재앙이 일어나 7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씀에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가서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의 값을 치르고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땅의 저주를 풀었다.

지금 한반도는 1953년 전쟁이 끝난 후에 휴전상태이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멈추라 하신 그때까지는 휴전이다. 대가를 지불하듯 책임의식을 갖고 땅의 저주를 풀어야 하는 곳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듯 회개 기도하는



▲ 백주석목사(광주포도원교회)

것은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들의 몫이다. DMZ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원리인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보고 계신다. 북한 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재를 뒤집어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때가 지금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묻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이라는 저주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는 못된 쓴 뿌리 같은 분열의 영이 있다. 동서간의 분열, 이데올리기적 분열, 계층 간의 분열 등 사회와 가정까지 분열의 영이 강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교파 분열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와 장로,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파송되어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으나 마음이 아픈 것은 그 현장에서도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운다는 것이다. 이런 분열이라는 저주의 끈을 끊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에 나가서 분열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교회로써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남북이 통일 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 가족으로 연합되어야 한다. 아비세대와 자녀세대가 연합되고 주안에서 한 가족으로써 연합을 누릴 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있는 자가 된다. 선지자가 되어도 진정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도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 graceyh02@hanmail.net

제45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일시 : 9월 14일(월) 오후7시15분

장소 : 주향교회(이병철 목사)

강사 : 이 규 목사(아름다운교회)

신천지 OUT



2013년 144,000을 완성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2014년 1월 1일이 되자 새로운 '조건부시한부종말론'을 제시했다. '지파완성, 흰무리 창조, 종교대통합, 만국회의'라는 새로운 지령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라는 단체의 대표 김남희를 차기교주를 등장시켰다. 이 두 사람은 현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소재 연수원에서 동거하고 있다. 김남희 차기교주는 '마리아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마리아'는 김남희 씨의 가톨릭 세례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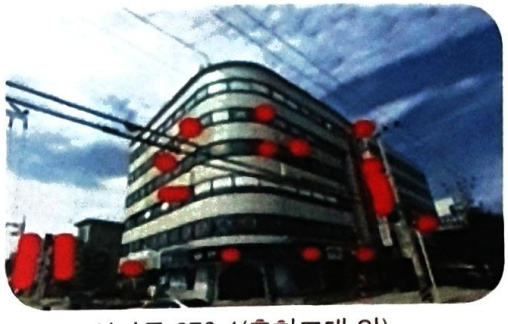
신천지는 철저히 자기 신분을 감춘 채 능숙한 거짓말과 탁월한 연기로 신앙심 좋고 사랑 많은 천사같이 가장하여 접근한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각종 설문지, 지인 소개, 동호회(스포츠 등 각종 취미활동),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원, 재능기부(어학, 음악, 악기, 운동, 독서지도, 각종 침), 봉사단체, 연구소, 선교회, 일일찻집, 바자회, 콘서트 → 신뢰관계 형성 → 상담(신앙 · 진학 · 진로 · 이성 · 비전 · 건강), 센터(힐링 · 비전 · 선교 · 그림치료 · 음악치료 · 심리치료), 분석(심리 · MBTI · DISC · 애니어그램 · 혈액형검사 · 도형분석) → 소그룹 성경공부(복음방, 다락방) 또는 위장교회(교회 명을 자주 바꿈) → 비밀성경교육 센터(구, 무료성경신학원) → 센터 수료 → 신천지 입교(지문 인식, 출입증 카드 발급) : 이런 과정을 거쳐 신천지 신도가 되면 신천지교회에서 예배한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이단상담실 김지한 목사

● 춘천 내 신천지 위장교회 및 센터 현황



석사동 114-24 (공지로 57-4)
'BLUE OCEAN' 건물 2,3층
[대학, 청년들 모임장소]



석사동 678-1(춘천교대 앞)
5층 '영어숲'이라고 썬팅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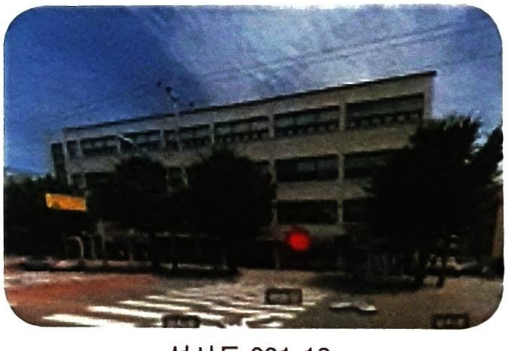
운교동 175-9번지
(강원CBS 뒤편 골목 안) 2층,
1층은 전기 공사사무실



요선동 12-2 번지(인성병원 뒷골목)
드라마 모텔 옆 '대망주점' 2층



동내면 학곡리 602번지
(학곡리 버스종점 근처)
'카우보이' 3층



석사동 291-10
(거두사거리 근처 한샘주방 2,3,4층)
[예배처소겸 세뇌된 자 모임처]



효자동 남춘로55번길 4
법원 앞 CU 골목 'SM노래타운' 3층
[청소년 모임처소]



춘천로 330(후평동 727-12)
후평지구대 건너편 '퇴계족발' 2,3층
[청소년, 공연팀 집회장소]



{행정 절차법38조} 공청회는 14일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기자회견용

자행된 강원학교인권조례 공청회는 원천무효!!

강원도에서만큼은 우리 아이 마음 놓고 학교 보내고 싶습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뜨거운 감자인가? 처음부터 뜨거운 감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 아이 중 두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일반 학부모인 나부터도 너무나 생소한 주제였다. 강원학교인권조례가 통과 된다면 당장 우리 아이가 이 조례로 인권교육을 받게 되는 현실이었음에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아이들의 인권을 위하고 보호하는 개념의 조례로만 알고 있었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조례 안에 성적자기결정권과 임신,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이 주어진다는 것이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에 관한 행동을 전적으로 성인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권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받는 법을 굳이 교육조례로 제정하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이 참 이상했다. 자신의 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는 교육이 미성년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엄마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각에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교육이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청소년들이 이것을 보호의 개념으로만 과연 받아들일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성인과 같은 권리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의 예를 살펴보니 심각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임신, 출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도 그렇다. 일부의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에서 품어주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맞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임신 출산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대다수의 아이

들에게 임신출산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된 다. 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된 서울지역의 모 초등학교에서 임신, 출산의 차별받지 않는 권리 교육을 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냈다가 학부모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서 이 내용을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아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다. 대상이 고등학생들이라면 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임신, 출산을 예방이 아닌, 권리로 교육하겠다니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이야기다.

2013년 이 조례안을 강원도 교육청이 상정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이 강원학교인권조례를 강원도 교육청은 재상정했고 요는 위의 문제가 되는 조항을 뺐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정말 이것을 믿어도 되는 걸까?

강원도 춘천에 뿌리를 두고 앞으로 몇 십 년을 세 아이의 학부모로서 지내야 하는 내게 강원학교인권조례는 큰 숙제였고 정말 알고 싶었다. 문제가 없는데 내가 편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마음이 들어 강원도 교육청의 문을 두드려 보기도 했다. 몇몇의 학부모들과 이 조례를 만드는 13명의 제정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어떤 분들이 이 조례를 연구하고 만드는 건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전부 비공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학교인권조례에 관한 건 전부 비공개이거나 전체 공개가 아닌 일부 공개였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지 우리 학부모들이 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물으면 물을수록 캐면 캘수록 더 뒤로 숨기고 더 꽁꽁 감추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조항을 뺐다는 강원도 교육청의 말과는 다르게 조례가 통과만 된다면 얼마든지 도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다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을 이번에 강원도 의회에서 최성재의원이라는 분이 강원학교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도정 질문을 하실 때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나도 세 자녀를 키우지만, 굳이 부모의 정치색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거나 교육하지 않는다. 그저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본인이 원하고 지지할 당을 결정하기를 바라고 자신의 소신과 의지대로 대한민국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부가 법외노조로 판결 받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보류하라고 했음에도 굳이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인정한다고 소신을 밝히신 강원도교육청. 이곳에서 밀고 있는 강원학교인권조례. 그 속에는 한쪽의 일방적인 정치 이념이 녹아있고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이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권리만을 쥐여 주는 조항들의 열거가 있을 뿐이다.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하기에 지금까지 고되고 힘들어도 1인 시위와 반대 서명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9월초 재상정의 시기까지 계속 강원학교인권조례의 문제점과 이것이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되는 조례임을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시게 될 때까지 이 반대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김미경



할랄 Halal이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3월 중동국가 순방 이후 각 지자체가 최근 정부와 보조를 맞춰 추진하고 있는 할랄 산업육성 열풍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할랄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박대통령의 무슬림 프렌들리 정책으로 17억 명의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슬람식 기도처를 늘린다든지 할랄 식당의 활성화 및 할랄 도축장 건설을 국가의 재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매우 안타깝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스크를 늘린다고 무슬림 관광객이 더 많이 오지는 않는다.

이슬람권에서는 실제로 기도 시간에 맞춰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원리주의자들(2% 이내) 뿐이다. 자기 나라에서도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처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관광을 오겠는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원리주의자들은 시간 맞춰 모스크를 찾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서 국가 재정으로 이슬람 기도처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





이 아닌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모스크가 없어도 아무데서나 돗자리 깔고 기도를 하므로 굳이 이슬람 기도처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할랄 식당을 늘린다고 무슬림관광객들이 많이 오겠는가?

이슬람의 할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와집:Wajib)이 아니라 해도 좋은 허용사항(할랄:Halal)이다. 금지된 것을 하람(Haram)이라고 하는데 금지된 음식이라도 무의식중에 혹은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꾸란2:173)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비무슬림들이 경영하는 식당이나 제과점에는 반드시 "비무슬림 기관"임을 명시하는 일정 크기의 광고판을 붙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만 맛이 있다고 소문나면 무슬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사먹는다. 이슬람권에서 반드시 할랄음식만 고집하는 사람은 대부분 원리주의자들뿐이다. 일반 대중들은 할랄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산다. 할랄식당이 늘어난다고 무슬림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할랄식 도축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일반 도축 방법은 짐승을 잡기 전에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후 잡기 때문에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할랄식 도축은 이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축 전에 기절을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이 기절상태가 아닌 반드시 맨 정신인 상태에서 도축해야 할랄로 인증된다. 기저된 상태가 아닌 맨 정신인 상태에서 갑자기 목의 동맥 정맥 기도 등은 끊어야 하고 목의 척수와 척수신경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심장의 펌프작용으로 온몸의 피를 뿜어내기 때문에 짐승이 극도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림에서 보

면 목의 양쪽 경동맥〈carotid a.〉과 경정맥〈jugular v.〉식도 기도 등을 길고 예리한 칼로 반드시 단 번에 끊어야하고 심장의 기능유지를 위해 척추는 자르지 않고 척추근처의 척추동맥〈vertebral artery〉이 잘리지 않는다.) 또한 피가 쉽게 분출되도록 목이 부분적으로 잘린 후 약 5분 동안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을 때까지 짐승을 거꾸로 매달아 둔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동물 보호단체들에 의해서 할랄도축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잔인한 동물학대에 해당하기에 유럽의 폴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할랄 도축을 법으로 금하고 있고 덴마크도 이를 고려하는 중에 있다. 할랄 고기는 짐승의 목을 자르면서 비쓰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무슬림들의 종교 의식이다. 또한 EU보건위원회도 할랄 도축법이 유럽 연합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동물 개념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아첨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8조1항에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할랄 도축방법은 대한민국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이방인들이 짐승을 잡을 때 자신들의 신들에게 일단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던 우상숭배자들의 문화를 이슬람에 접목시킨 것이다. 이슬람의 신 알라(Allah)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으면 할랄이 아니다. 테러범들이 이교도들의 목을 칠 때도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더 위대하다)"라고 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종교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첨단시설과 위생시설이 잘 갖춰진 도축장에서 잡아도 비쓰밀라(알라의 이름으로)를 외치지 않으면 할랄이 아니다. 영국에서 할랄 시장이 활성화 되자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할랄 도축자들(이맘=무슬림 성직자)이 5000명이나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영국의 이슬람화를 가속화시켰던 요인이 되었다. 무슬림들은 할랄이 행복한 동물(Happy animal)개념을 지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일반 도축방법은 도축 전에 전기 충격으로 기절시킨 상태에서 도살하기 때문에 기절시킨 다음에는 동물의 호흡이 거의 멎어 있고 동공은 풀려 있어서 사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잡기 때문에 동물이 고통을 거의 느끼게 않는다.(마치 수술 전 전신 마취 후에 신체부위를 칼로 잘라도 환자가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만든다.

많은 시간과 수천 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할랄 인증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인증 취소를 받아 손해 볼까 두려워서 무슬림들보다 더 철저히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굴종하게 된다. IS나 알카에다의 눈으로 보면 돈 싸들고 와서 할랄 인증서라는 종이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면 스스로 샤리아의 노예가 되겠다는 사람들, 바보스럽도록 "착한 후원자들"로 보일 것이다. 이 할랄 도축으로 생긴 이익금은 이슬람 테러단체의 지원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꾸란9장60절).

정부의 할랄 지원 사업은 헌법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특정 종교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참사랑내과 정형만 원장

심수무성(深水無聲)

예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심수무성(深水無聲)이라는 말이 있다.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얕은 시냇물은 오히려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깊은 물은 움직임도 느리고 소리도 나지 않는 듯하지만 그 안에 큰 움직임이 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놀다가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 아이는 사방을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얼마 후 돌아온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공장 전원스위치를 내리라' 고 지시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얼마 되지 않아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교훈한다. "아들아, 세상이 시끄러울 땐 반대로 조용히 있어 보아라.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요란하다. 세상이 번잡할 때는 같이 우왕좌왕하기보다 조용히 침묵하라. 침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는 것이 좋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 원하신다. 조용히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최상도 기자 / saam21@hanmail.net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악한 영으로 꽉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사람들과 특히 직장에서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하거나 그들의 습관과 정서에 동화되어서는 안된다. 다니엘의 세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이 아닌 하나냐(여호와는 인자하시다) 미사엘(하나님과 같은이가 누구인가?) 아사랴(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의 이름처럼 살아가게해달라고 기도해야할 것이다.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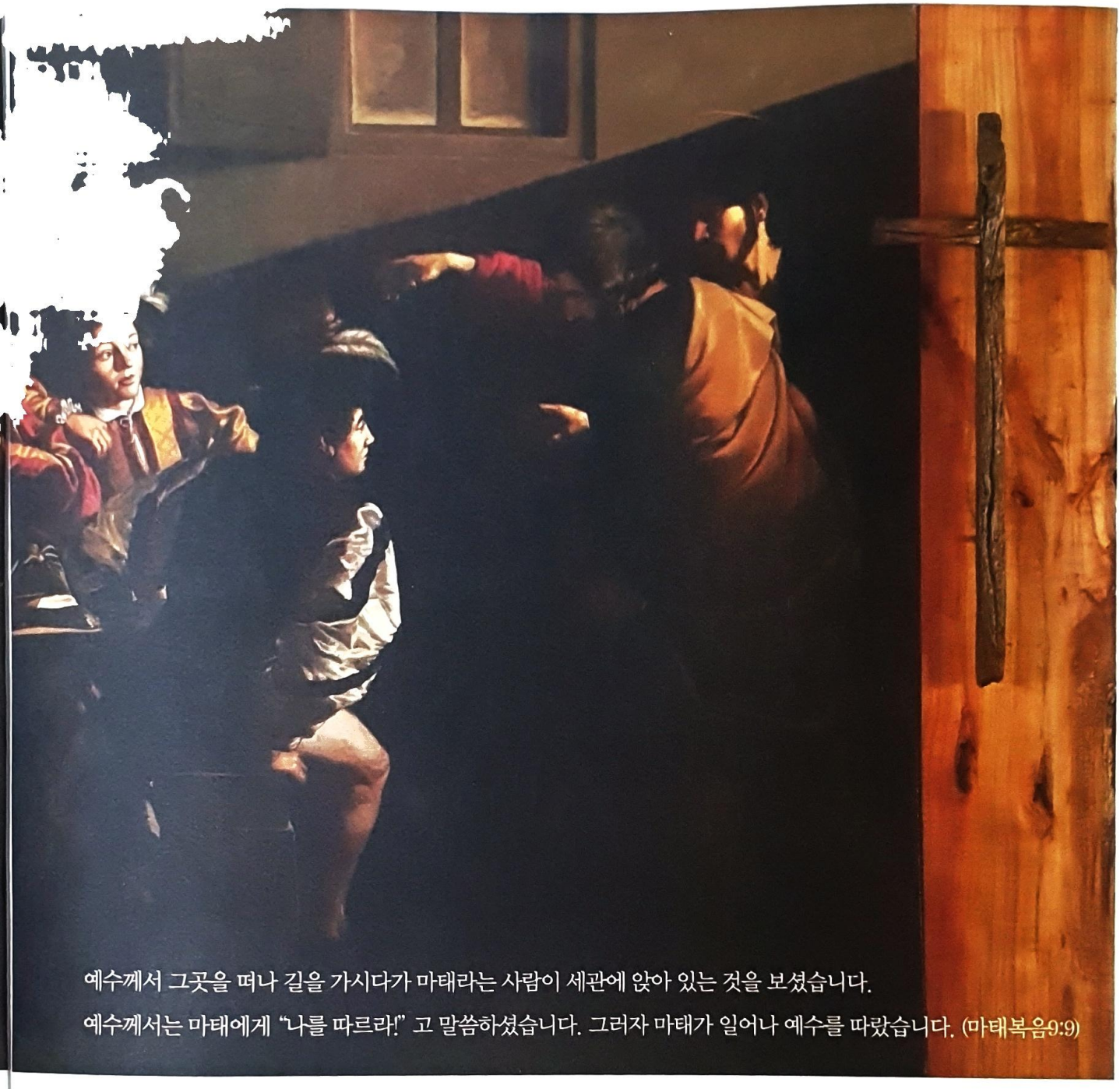
2015-13 / 344×161.9cm / oil on canvas & wood

Salvation 작가 김복동

기독작가 김복동 작가의 작품은 올해 10월 9일부터 춘천아가갤러리(Tel 262-9229)에서

직접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가갤러리(관장 권영순 권사)에서는 10월 2일까지 강원숲미술연구회의 '藝숲展'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9:9)

카라바조는 마태를 주제로 여러 작품을 남겼다. 마태와 천사, 소명, 순교 등의 작품 중 세리장이 '마태의 부르심(Caravaggio/1599-1600/Oil on canvas/322×340cm산 루이기 데 프란체시성당 소장)' 은 걸작중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빛과 어둠의 극한 대비를 통해 죄인 마태와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연극무대처럼 구성하고 표현했다. 예수님의 손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의 아담을 모방하고 있고,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제자는 수제자 베드로이다. 이미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를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테이블에 앉은 다섯 사람 중 셋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나, 두 사람은 여전히 돈이 놓여있는 테이블 바닥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이가 마태로 추정된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분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들을 본다. (작가노트 중)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북한이탈 청년들을 세우는 **두드림 아카데미**

춘천에는 이런 곳이 있다. 북한이탈청년교육사관학교 "두드림 아카데미".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문구가 예사롭지 않다. "조국과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은 이 문을 드나들지 마라". 북한에 체류하며 흘렸던 안타까운 눈물을 기억하며 북한이탈청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까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려는 두드림아카데미 김영우이사장을 만났습니다.



두드림 아카데미는 어떤 학교인가요?

북한 이탈 주민들 가운데 20~30세 남자 청년들 중에 학교에 가지 못해서 배움의 기회를 놓쳤거나, 취업이 안돼서 남한 사회에 정착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양과 교육 그리고 기술을 함양시켜서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한 후에도 잘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맨토링을 합니다. 그러니 단지 학교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학생들을 돌보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학교입니다.

학교는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사단법인을 설립했고 2013년도에 준비해서 2014년도 초에 개교를 했습니다. 주로 국내 여러 기관이나 개인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이사장님과 교사는 4명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식사를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자원봉사 선생님이 15명이 있는데 대부분 강원대, 춘천교대, 한림대 대학생들입니다. 컴퓨터나 토익과 영어 공부를 도와줍니다. 기초 공부들은 자원봉사로 섬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드림 아카데미
김영우 이사장

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원래 외환은행에 있었는데 KEDO 소속으로 경수로 관계로 자금 결제를 담당하면서 북한에 들어가게 1년 반 정도를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은행권이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교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 북한주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들어가면서 울기 시작해서 나오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사회봉사자로 제2의 꿈을 꾸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분야를 선택한 것이 청년, 청소년 복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탈북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에서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에서 두드림 아카데미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원래는 강원도 차원에서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국내에 있는 민간 기구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원도에서는 이런저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후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학교를 시작할 때에 춘천에는 아무런 연고 없이 시

작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어 감사드립니다. 아마 절반이 춘천 시민들의 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나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학생들 공부나 운동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춘천에서 남북통합시대에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도와줄 것이라 믿습니다.

학생들 교육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중에서는 힘들었던 여건 때문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기술을 습득해서 취직을 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인성을 중요시 여기고, 학생들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기 개인 방과 개인 옷장을 갖고 있어 행복해들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물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식사를 다 준비해 주고 설거지 한번 안 시킵니다. 북한에서 어렵게 살다가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남한에 온 보상으로 맘 편안하게 잘 먹고 공부하도록 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이들에겐 더 우선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자기들이 규칙을 짜서 생활하는 등 스스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혹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후원을 받으니깐 성과를 요구하는데 이 학교는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취직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까지는 적어도 4-5년을 족히 걸립니다.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사장으로서 지고 가야할 부담이 큽니다. 후원금을 갖고 기본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급비를 타는 아이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적금을 들게 하고, 가계부로 쓰게 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병철 기자 / kokkos21@gmail.com

학생 소감

중국에서 2년 있다가 한국에 온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2014년 7월에 왔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에 중학교를 2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을 많이 하다가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지내면서 북한에서 들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 29세

학생 소감

학교에 오게 된 것은 킨텍스에서 직업 면접을 하는데 상담사인 분이 두드림 아카데미를 소개해 주어서 알게 되어 오게 되었고, 좀 더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분들이 잘 해 주시고 마음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 배우지 못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부만 하지 않고 두드림 아카데미 학생들(5명)과 강원대 인액터스(5명)라는 동아리와 함께 호반 베르디움에서 양봉을 합니다. 재미있긴 한데 벌한테 쏘이는 것을 싫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있는 일을 해 보자는 의견이었는데, 일시적이고 한번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양봉이 채택되어 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봐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운영도 해야 하고 의논을 해 나가면서 하려고 하니 힘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서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지금 11개의 벌통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은 극한 직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함께 프리마켓 활동도 하고 있어 의미있는 활동이라 재미있습니다. 중국어를 잘 해서 개인적으로 알바도 합니다.

송나단 28세

교사 소감

저는 기초학습과 중등과정을 가르칩니다. 북한을 이탈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서 교육 기회가 있어도 생활이 어려우니 공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마당에서 꽃제비로 생활하다가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깐 여러모로 어려워합니다. 20대 중후반인데도 초등과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 자존심도 있고, 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해서 뭘 하겠냐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취직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마쳐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공부보다는 취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을 가르쳐서 취직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정착을 잘 못합니다. 돈맛을 알아서 일용직이나 몸으로 떼 울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장기적으로 삶을 설계하도록 지도합니다.

이곳에서 신앙교육은 근처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학생들과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나누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영어 공부차원에서 영어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는 신앙교육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오면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김승훈목사

힘차게 걸어갑시다

창세기 28:10-22



한길감리교회 이덕성목사

적막하고 황량한 들판에서 허기진 채 쓸쓸하게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의 앞날 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뚜렷한 비전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세 번이나 뚜렷하게 보았음을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12절, 13절) 그 비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외톨이 신세가 된 처량하고 딱한 처지에 있던 야곱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사방은 다 막히고, 다 끊겼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도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분명한 확신을 가지세요. 내 인생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고, 열려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뜻밖의 하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동행의 축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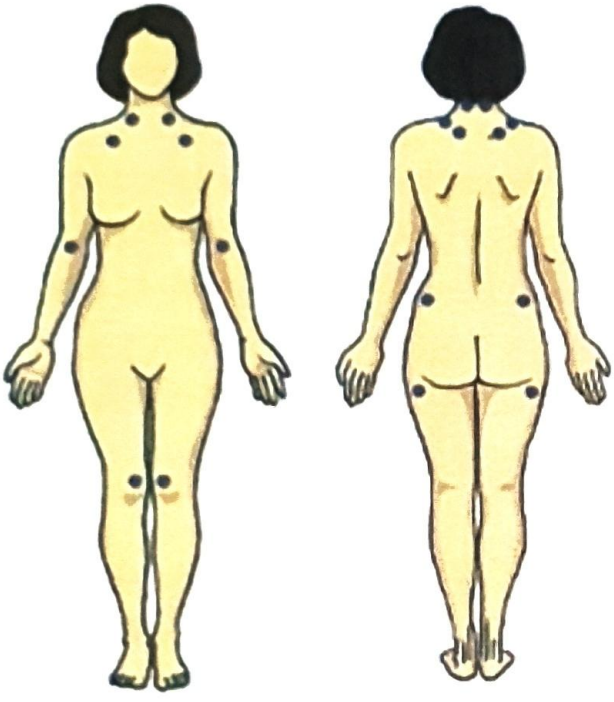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밤 야곱은 너무나 흥분되고 황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쓸쓸하고 적막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로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하루 밤 머문 땅 이름을「벧엘」이라고 부르며, 자기의 멀고 먼 인생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18-22절)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곧 벧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본 사닥다리 환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메시지는 야곱의 그 가슴어린 꿈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모든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절망의 밤을 맞이했는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거듭 주지시켜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처럼 상속받기를 원하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손 대대로 누리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반복하십니다.『꿈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 자신이 꿈을 이루어보려고 온갖 방법으로 노력해보다가 실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꿈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천명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보십시다. 당신의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당신에게 꿈이 있다면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니, 우리는 끈기와 결단력만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꿈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줍니다.

어떤 만화가가 A. Lincoln의 생애를 간단한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초라한 통나무 오막살이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백악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학교라고는 3년 밖에 다니지 못한 링컨이었지만, 대통령이 되고자 한 그의 꿈이 이루어진 사실을 멋지게 설명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사닥다리 비전입니다. 당신이 꿈을 접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시니 지금 당신의 환경이 잠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유근통 증후군

고석연 가정의학과
고석연원장

한 부부가 진료실에 들어왔다. 남자의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모습이 겸손하기도 하고 예의바르게 보여 참 좋았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둘 모두의 시선과 몸짓에 배어 있었다. 사이가 좋은 부부의 모습은 언제나 기분을 좋게 한다. 혈압이 높다며 여자도 진료를 원했다. 그런데, 뜻 밖에도 이 환자는 섬유근통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섬유근통증후군은 만성 통증성 질환이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전신에 광범위하게 이유 없이 통증이 발생하고, 압통점이라는 곳을 눌렀을 때 18곳 중 11곳 이상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진단을 한다. 이 질환은 증후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뇌의 화학적 변화(세로토닌의 변화), 수면장애, 사고, 감염, 자율신경계 장애, 근육대사 장애, 유전, 성장호르몬 결핍, 면역결핍 등 다양한 것들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섬유근통증후군 환자가 오면 가장 먼저 물어 보는 것이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여부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고,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 되거나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따라서 치료는 잠을 푹 자도록 하는 것 과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약물을 사용해서 이런 증상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섬유근통증후군 환자에게 우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세로토닌의 결

핍이나 불안정성이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섬유근통증후군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고 많이 사용하는 약들이 항우울제이다.

글머리에 언급했던 여자환자에게 남편과 말이 잘 통하는지 물어 봤다. 그리고, 마음을 읽어주는 말들을 하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아내의 반응에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 부부는 사이가 매우 좋았다.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을 둘 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남녀 차이에서 오는 대화의 단절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듯했다. 남편에게 감정의 공감을 나타내는 여자들의 대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었다. 여자 환자는 남편도 모르고 자신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많은 여자 선교사들이 섬유근통증후군을 비롯한 많은 질환들에 시달리고 있다. 선교현장은 환경이 언제나 열악하다. 습도가 높고 춥기도 하고,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은 경우도 있어서 저녁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허다하다. 일은 어찌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을 새로 만나야 하고, 밥을 해 먹여야 하며 심지어 자식들 교육마저도 혼자서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 사역은 사역대로 있어서 남자 선교사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문제 해결 위주의 사고와 이런 대화법을 구사하는 남자 선교사들은 사역의 문제가 해결 될 때마다 스트레스도 사라지지만 감정 공감의 대화법을 사용하는 여자 선교사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대화의 단절(맘 편하게 말 할 수 있는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친한 여자들이 주위에 없음)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간다. 이 스트레스는 많은 질환들의 원인이 되고, 우울증을 비롯한 우울증으로 인한 만성 통증성 질환들을 만들어 낸다.

얼마 전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자선교사를 만난 적도 있다.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생겼다며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런데 단지 음식 준비와 설거지로 인해서만 관절염이 생겼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충분하지 못한 수면, 공감 받지 못하는 감정, 계속되는 새로운 사역과 아이들의 양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보다 큰 질병의 원인일 것이다.

섬유근통증후군은 여자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더 많은 남자들이 감정을 공감하는 대화를 할 수 있고, 여자들의 웃음 뒤에 있는 눈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체력의 한계 또한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6시간 잠을 자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야 피로가 풀리는 사람도 있고, 똑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서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정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섬유근통증후군은 만성 통증성 질환이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전신에 광범위하게 이유 없이 통증이 발생하고, 압통점이라는 곳을 눌렀을 때 18곳 중 11곳 이상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진단을 한다."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들이 자주 찾아가는 식당은?

은아기사식당
춘천시 당간지주길 61 (근화동 793-5) GS충전소 부근
☎ 251-7402
메뉴 : 백반과 제육볶음 외 각종 찌개류 전문
영업시간 :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모든 식자재 전부 국산)

정답은? 기사식당, 기사님식당!

이곳 본지에 '예수의 味笑' 란 제목으로 숨어있는 맛집에 대한 글을 5년 넘게 쓰다 보니 주변사람들로부터 00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권사(필자)가 제일 자주 가는 식당은 어디야?' 라고 묻는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서슴없이 기사식당이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왜 많고 많은 식당 중에 왜 하필이면 기사식당이라고 되물으면 한마디로 집밥 같아서라고 말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어디 멀리 지방출장 중에 마땅히 아는 식당이 없으면 그냥 기사식당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사식당의 메뉴와 맛과 가격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이다. 그리고 어쩌다 아침부터 외식을 할 경우 메뉴가 정해진 해장국집 보다는 국, 찌개, 등 다양한 메뉴와 가격대비 참 착한 식당인 기사식당을 찾는다.

필자도 가끔씩 집에서 밥 먹는 게 귀찮으면 집 가까운 분식점도 가지만 분식점과 기사식당과는 많이 다르다. 우선 분식점에서는 김밥을 팔지만 기사식당에서는 김밥은 팔지 않는다. 그리고 분식점은 학교근처나 인파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사식당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메뉴 또한 분식점은 많게는 60여가지에 반해 기사식당은 20여가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분식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남녀노소 다양하지만 기사식당은 거의 대부분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남자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나름 음식 매니아라 자처하면서도 맛집에는 자주가질 않는다. 다만 아주 특별한 날에 부모님과는 곽만근 갈비, 청정골, 도토리네 집, 아들과는 백종원의 쌈밥, 중국집 하오하오, 신사동 족발, 귀한 손님과는 해미일식과 퓨전일식 누보, 우리 직원들과는 바이킹 뷔페, 중국집 남경, 소뚜레, 친목모임은 진석이네 제주고기, 퇴계골 멀리서 오는 손님들하곤 부안막국수나 샘밭막국수, 명동 닭갈비골목을 찾는다. 하지만 이 같은 음식은 모두



별식이라 매일 먹을 수는 없고 값도 비싸서 집밥 같은 음식점을 찾다보니 기사식당을 가게 된 이유다.

처음 필자는 기사식당하면 왠지 어수선한 식당 안에 사람 냄새, 땀 냄새 펄펄 나는 시끌벅적한 함바집 같은 식당에 앞치마를 두른 인상 좋고 인심 좋은 아줌마를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음식 맛이 너무 좋다보니 인공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듯, 맛이 쎈 듯하여 매일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없는 곳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12년전 대학원석사과정 때문에 서울을 자주 올라가던 중 시간과 식사 값을 절약하고자 우연찮게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안에 있는 제일기사식당을 찾은 이후부터 기사식당에 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고 그 이후로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사식당을 자주 찾게 되었다. (제일기사식당?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백반 음식 값은 똑같은 뷔페식 식당으로 지난 복날에는 같은 가격에 큰 닭다리가 하나가 담긴 국인지 탕인지로 나왔다고 하니 그날 찾아간 분들은 로또 맞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곳 은아기사식당의 백반은 다른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가격은 5,000원이지만 7가지 이상의 반찬과 국 혹은 찌개가 매일 색다르게 맛깔스러운 것은 기본이고 식사 중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는 사장님의 친절한 미소가 있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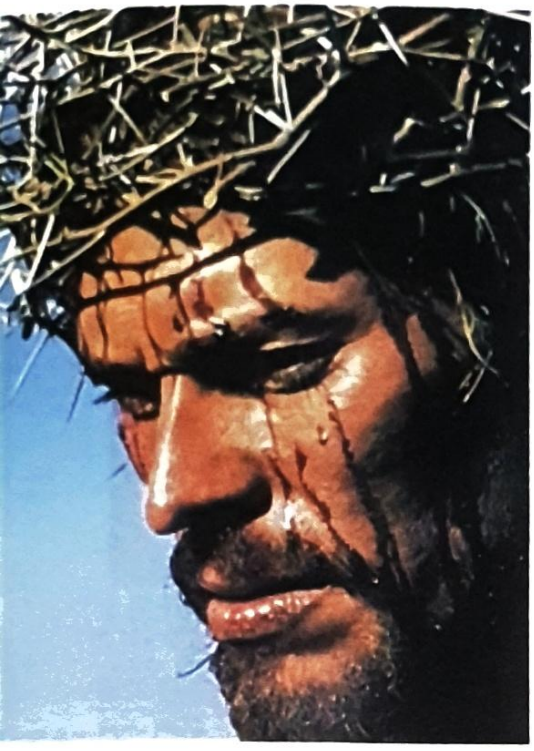




음식점에 갈 때마다 (좀 과장된 표현으로)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들려주실까 하며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다.

이 글을 쓰다 보니 기사식당? 기사님식당? 기사? 기사님? 이라 하니 문득 필자의 군 시절 에피소드가 생각나 잠시 적어본다. 군 입대 훈련소, 고된 훈련을 받던 중 꿀맛 같은 휴식시간에 어느 믿음 좋은? 훈련소 조교의 한마디 외침소리가 들렸다. '여기 훈련병 중 교회에 다니는 훈련병 있으면 손들어봐!' 나를 포함하여 여러 명이 손을 들자, 그중에 한명을 지목하여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복음 송을 불러보라 하니 그 훈련병은 '실로암'을 비롯하여 몇 곡을 은혜스럽게 부른 뒤,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친구'란 곡을 부름과 동시에 그 훈련 조교는 훈련병에게 냅다 달려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이 너 친구냐? 너 친구냐고!' 그 믿음? 강한 조교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아멘!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김춘배 기자 / beller@hanmail.net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본지에 영화를 소개할 때 대개는 물론 관람을 적극 권장하는 취지이지만 때로는 경계하며 분별을 요하는 작품도 소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바람직하고 최선의 경험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작품은 영화적 가치도 있고 세간의 화제가 되었으나 내용상 문제가 있어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선택, 수용해야 하는 지향점에 대한 공유를 위한 것에 가까운 것이겠다.

필자가 대학 졸업 무렵 한창 왕성한 독서욕으로 만난 기라성 같은 작가들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 작가가 있었다. 그의 소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라는 작품은 당시 내 영혼에 불을 지른 엄청난 작품이었다.

니체와 베르그송의 생철학 이론을 통해 그리스정교회 신앙의 근본교리들을 해석하였으나 오히려 그리스 정교회의 비난을 받기도 한 문제의 작가로서 노벨문학상에 두 번이나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시적인 문체의 난해한 작품이지만 영혼과 내면에 관한 폭넓은 통찰로 깊은 공감과 영혼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작가였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작품으로 문학사의 큰 업적을 이룬 중에 신앙의 문제에 대한 심층적 고찰의 산물인 것 같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도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며 이어서 십자가 고난의 코스프레 행사를 다룬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 라는 작품을 내기도 하였다.

이 영화를 1988년에 만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뉴욕비평가상 등 영예의 수상 경력에 〈디파티드〉라는 영화로 2007년 제79회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명감독으로 특히 명배우 로버트 드 니로와 같이 즐겨 영화를 만들며 주로 문제작을 만들어 화제와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의 원작을 영화로 만들어 성직자들의 상영반대시위까지 당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묘사해 신성모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영적 질서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위험한 변조와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표현과 주제에 관한 작가의 추구와 모색의 과정상 문제인 것이지만 일부 독자들에게 호도(糊塗)의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고난 중의 인간적 고통이 또 얼마나 지극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그러한 고통을 모른 채 영적 메시지를 수용하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설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목수이되 로마정부를 위해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는 것과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기 전 잠시 인간적 유혹으로서의 꿈을 꾸었다는 설정이 그것이다.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던 웰럼 데포가 맡은 예수님은 확실히 인간적으로도 참 불안하였다. 그리고 하비 카이텔이 연기한 가룟 유다도 대단히 복합적인 설정으로 나왔다. 그러나 카잔차키스의 강렬한 주제의식과 명감독 스콜세즈의 솜씨가 조화를 이루어 깊은 통찰과 지혜로 보면 또한 공감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로서는 원작은 그대로 문학적으로 읽으면 더욱 깊은 영적 반성과 각성의 기회가 되지만 이렇게 영화로 옮기기까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이다.

러닝타임 2시간 43분

김춘배 기자 / beller@hanmail.net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춘천은혜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2492-4316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9-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 (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동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일시 : 월~금 (주1회) 9:00-14:00 시간 변동 가능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 내용 : 식당보조 및 배식, 설거지,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 인원 : 00명 · 장소 : 일정 및 시간 협의 가능

☎ 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안한나, 이의경 사회복지사)

①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② **예수전도단 "말씀 세미나" 개최**

· 일시 : 2015년 9월 9일(수)~11일(금) 저녁 7시~10시

· 장소 : 효자감리교회

· 주제 : "알기 쉬운 성경과 하나님의 뜻(신약개관)"

· 강사 : 김상민 간사(전 제주열방SBS학교장,현 SBS센터 간사)

· 대상 : 교회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교사, 예배부부, 부모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 010-7328-4520(서귀석 간사)

③ **예수전도단 "귀납적 성경연구코스"**

· 일시 : 2015년 10월 1일(목)~2015년 12월 18일(금) 매주/목금 저녁 7시~11시

· 대상 : 20세이상 성경에 관심있는 분

· 모집 : 8월10일-9월 25일

· 주제 :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롬 8:38-39절)"

· 장소 : 소양제일교회(퇴계동 홈플러스 건너편) · 회비 : 80만원(변경가능)

☎ 010-7328-4520(서귀석 간사)

※ 정정 안내 : 201호 page 16 조영호목사로 정정합니다.

8월 이야기

탈북자 도시체험

1일 탈북자도시체험행사가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8월 8일(토)에 제일장로교회(박상호목사)에서 있었다. 탈북자와 섬김이 60여명이 예배 후 조를 나누어 춘천 명소와 시장등을 돌아보며 도시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와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소년원 여름성경학교



춘천소년원 내 기독예배팀인 소망선교회(윤정애집사) 주최로 소년원여름성경학교가 8월10~13일까지 있었다. 올해에는 중앙감리교회(권오서목사)의 후원이 있었고, 서울온누리교회와 중앙감리교회 청년들이 교사로 섬겼으며, 마지막 날에는 춘천중문교회 박상홍목사 주례로 소년원 12명의 세례식도 진행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찬이사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성시화라는 주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전략들을 구하며 나누는 모임인 이사회가 매월1회 조찬모임으로 갖고 있다. 이 달에는 8월 7일(금) 오전7시 남산감리교회(장춘근목사)에서 있었다. 성시본부의 SEED MONEY가 될 발전기금 모금, 기업인 광고책자 발간 계획 및 10월 성시선교대회 준비를 위한 논의들이 있었다.

9월 202호 편집회의



춘천성시 매거진 편집회의가 황병호장로(홀리클럽 회장)의 섬김으로 회장메에서 있었다. 애찬 후에 9월 202호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광고 및 취재 문의

전화: 033.256.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제70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제70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가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김종익회장, 광명장로교회) 주관으로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목사)에서 8월 16일(주일) 오후2시30분에 드려졌다. 박찬욱목사(부회장, 새순성결교회)의 사회와 김용기목사(서기, 푸른샘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순복음춘천교회 찬양대의 찬양과 김종익목사(회장, 광명장로교회)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어 유동선목사(춘천중앙성결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의 "민족이 살길(요3장 36절)"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유동선목사께서는 "광복70주년을 맞아 흩어졌던 교단들이 하나가 되자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데, 통일한국의 꿈을 꾸며 기도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이어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의 진수는 서로 용서하는 삶이고 화해하는 삶이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민족과 세상을 바라봐야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남과 북,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용서와 희생이 있는 십자가 정신으로만 가능하다. 평화통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의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민족의 살 길이다"라고 선포하셨다. 말씀선포 후 윤재선목사(산천무지개교회)의 인도로 동성애, 인권문제, 이슬람, 일본헌법9조 평화헌법 유지를 위한 특별기도가 있었고, 이승구목사(회계, 삼천동성결교회)의 봉헌기도, 정덕현목사(총무, 푸른초장침례교회)의 광고와 애국가 제창이 있은 후 박상호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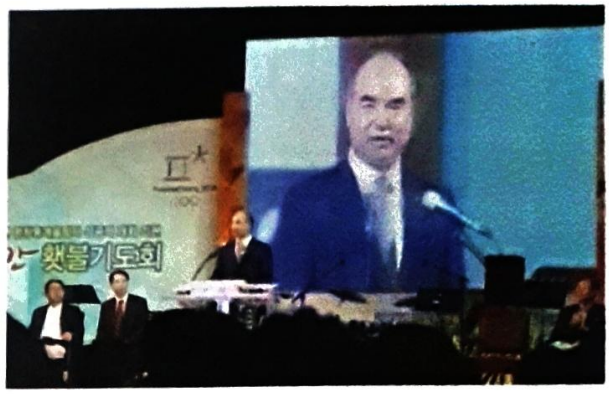
8.15 DMZ 게더링



8월14~15일까지 열린 2015 815DMZ게더링은 광복70주년을 맞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에 따라 순종한 해외와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1441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춘천호반체육관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12개의 전망대에 흩어져 동 시각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땅의 분열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되기를 기대하며 희년을 선포했다. 각 지역이 각 전망대를 맡았는데 춘천에서는 화천 승리전망대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원 제16회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주관, 18개시군 기독교연합회의 후원으로 8월 23일(주일) 오후4시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있었다. 1부 예배에는 김한호목사(동부교회)의 사회로 신관우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대회사와 이민수목사(홍천군기독교연합회 회장)의 대표기도 후, 차덕수목사(춘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의 성경말씀(로마서12장14~15절) 봉독, 춘천중앙감리교회 연합찬양대의 특송이 이어졌다. 이날 강사에는 유만석목사(수원명성교회)였는데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민족과 교회, 자녀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말씀선포가 있었다. 특별기도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박인관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의 기도가 있었고, 이평찬목사(CTS방송)의 헌금특송 후 김창환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의 헌금기도가 있었다. 2부는 함재홍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최동용 춘천시장의 환영사, 맹성규 부지사(강원도청 경제부지사), 김기선국회의원, 김진태국회의원의 축사, 김한구감독(동부연회)의 격려사, 지용찬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의 감사의 말씀, 이용호목사(화천군 기독교연합회장)의 남북통일을 위하여, 이수형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를 위하여 특별기도가 있은 후, 권오서목사(강원도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3부 콘서트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소향의 콘서트, 두드락의 퓨전퍼커션이 있었고, 경품추첨으로 횃불기도회를 마무리했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



8월31일(월) 저녁8시에 석사교 하천무대에서는 춘천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목사 춘천대표)가 있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중국 전승절에 참여하는 대통령을 위하여, 국가지도자를 위하여,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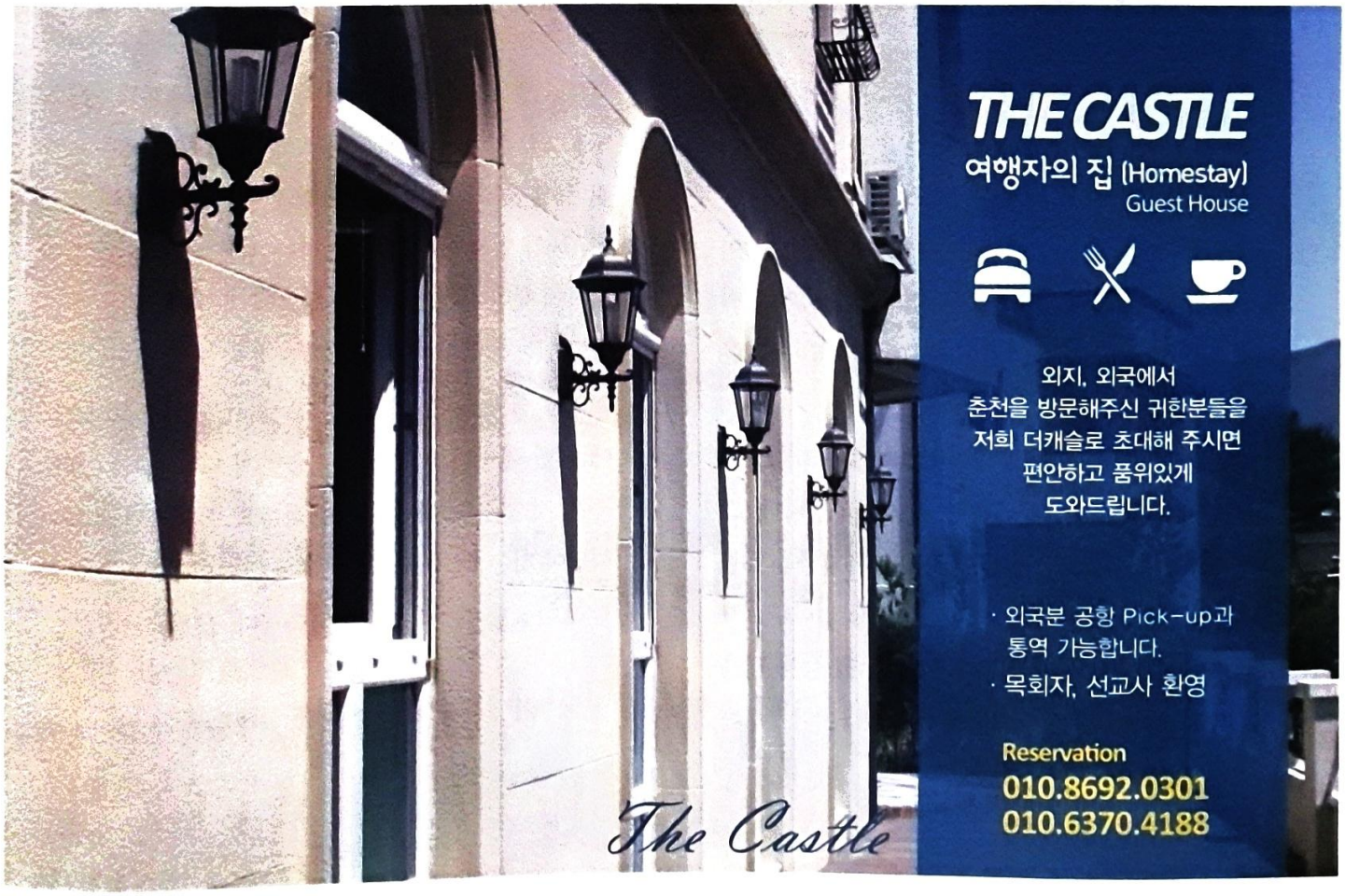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남지방회 교육부에서는 지방회에 속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교사세미나와 위로회를 개최했다. 8월 29일(토) 창대교회(이성신목사)에서 열린 이번 교사세미나의 개회예배 설교에서 손학균목사(석사감리교회)는 요한13장12~15절 말씀으로 "참 선생이신 예수 본받자."라고 선포하셨다. 이어 이칭찬교수(강원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김지헌 교사(강원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정주희 전문상담사 강의 후, 애찬을 나누었다.

원로목사님 부부 위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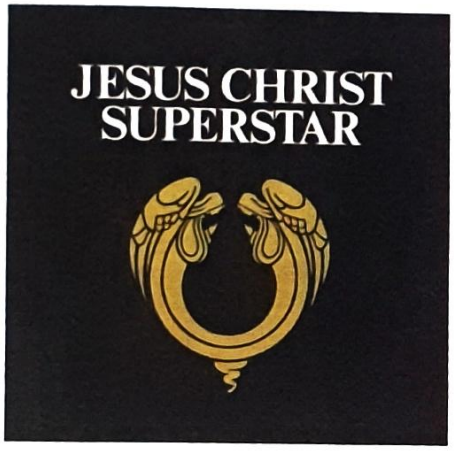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김종익회장)에서는 은퇴하신 원로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8월20일(목) 정오에 곰배령에서 위로회를 베풀고 약간의 용돈과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12분의 원로목사님 사모님들을 섬기기 위해 춘천기독교연합회(지용찬회장)와 장로연합회(정재호회장) 그리고 침례교춘천지방회(샘밭침례교회 차성회목사)에서도 협조를 하였고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고 정덕현목사(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 총무)께서 소식을 전해 주었다.



A. 웨버

ANDREW LLOYD WEBBER
(1948–)

록 오페라 슈퍼스타 예수그리스도
JESUS CHRIST SUPERSTAR:1970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있어 열대야를 잠재웁니다.

방학동안에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뮤지컬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서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들이 문화가를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 전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영국에서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중 주말에 런던의 유명한 웨스트엔드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캣츠CATS 1981-2002〉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후에 이 작품이 살아있는 영국 팝 뮤지컬의 대가 웨버와의 만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늙은 고양이의 〈메모리〉의 독창은 감동이었죠.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슈퍼스타 예수그리스도〉 역시 웨버의 명성을 있게해준 록 오페라입니다. 그는 이름만 대면 한번쯤 들어봄직한 뮤지컬을 13편이나 작곡하고 기획했던 이 시대의 거장입니다. 〈캣츠〉, 〈에비타〉, 〈오페라의 유령〉, 〈요셉〉 등등 많은 뮤지컬의 주옥 같은 노래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녀를 키워준 사라 브라잇만의 전 남편이었기도 했습니다.

짧은 지면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록 오페라 : 이 작품은 뮤지컬이 아닌〉를 대하는 불편한 심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각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수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의 이야기를 테마로 이 오페라를 전개하면서, 복음서에는 없는 가룟 유다의 독백들이 그리스도의 고뇌에 집중하기 보다는 현대의 심리적, 정치적, 사회적인 재해석에 무정부주의적인 요소까지 끼어들어 온갖 70년대의 고뇌를 짊어진 로큰롤의 자유분방한 음악적 해석까지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뮤지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록 뮤지컬로 궁금하신 분은 지금 서울 롯데월드 샤롯테 극장에서 (아마 9월중순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적인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 〈EVERYTHING' S ALRIGHT : I DON' T KNOW HOW TO LOVE HIM〉은 어린 시절 즐겨듣던 록 아리아였습니다. 혹시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메시야에 대한 부분에 다양한 영화와 음악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적이고 이단적인 문화와 싸워야 하는 초 가을의 문턱에서 다니의 음악이야기와 함께 하셨던 만천리 소식이었습니다. 샬롬!

김금찬 선교사 (JDM)

가보자!!

홍천 한서기념관



한서 남궁 억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무궁화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기독교 성지 홍천 한서 기념관에 친구들과 함께,
손자손녀들과 함께 자주 찾아 오시면,
우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되며,
정신줄을 한 번씩 당겨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서교회 홍천 033)434-1069 / 한서기념관 홍천 033)430-4488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 033.258.9060~2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병동은?

-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 유형

- 암성 통증, 신체적 증상 조절,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념일 축하,소원들어주기), 영적상담과 종교적 돌봄, 심리적지지, 사별가족 지지모임

특별프로그램

- 다도, 미술, 원예, 스포츠마사지, 영화상영, 힐링노래방, 음악회, 가족지지모임



나의 미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다!

한전 전우회의 추천을 받아, 노후에 행복하고
안정적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태양광발전사업 회원을 모집합니다.

사업개발규모 : 약 3만평(정선지역)
총 시설용량 : 2MW
이익금 : 월 200만원이상

회원 (인당)
시설용량 : 100kw
투자비용 : 2억 5천
자부담 : 1억 5천 (용자 1역 Y신협)
토지 500평 및 태양광발전 시설 일체 등기 이전
한전 12년간 매입계약 (안정적 수익)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시공사 : 부림



부 림 대표 임 규 현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 CBS 기독교방송 건물 3층
070.7352.6057 (010.6470.6057)

건사연

동성애는 유전인가요?

heredity

건사연

유방암 감수정 유전자 **BRCA**

폐암 유전자 **ALK**

당뇨병 유전자 **GNB3**처럼

동성애도 유전자가 있나요?

건사연

아니요.

동성애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건사연

1993년 미국의 분자생물학자

Dean H. Hamer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 유전자는 Xq28이다.



건사연

그러나 1999년 라이스

Xq28은 동성애 유전자가 아니다.

2002년 Hamer까지 포함된 더 큰 연구팀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건사연

2010년, 2013년에 발표 된 여러편의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X

건사연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타고났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논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건사연

동성애에 대한 바른 정보, 모든 정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건사연

홈페이지 www.pshs.kr

트위터 twitter.com/pshskr

카페 cafe.naver.com/pshskr

블로그 blog.naver.com/pshskr

발전기금

사암교회 주향교회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윤옥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진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춘희 김향란 김현덕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관식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옥자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범찬 이병일 이상만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숙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윤숙 이은경 이은옥 이종상 이진주 이철호
이태우 이형식 이혜숙 임덕수 임우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소희 장창순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재현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경희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조영순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탁광희 한명수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 봉 허서구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인숙 홍택기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춘천성시운동본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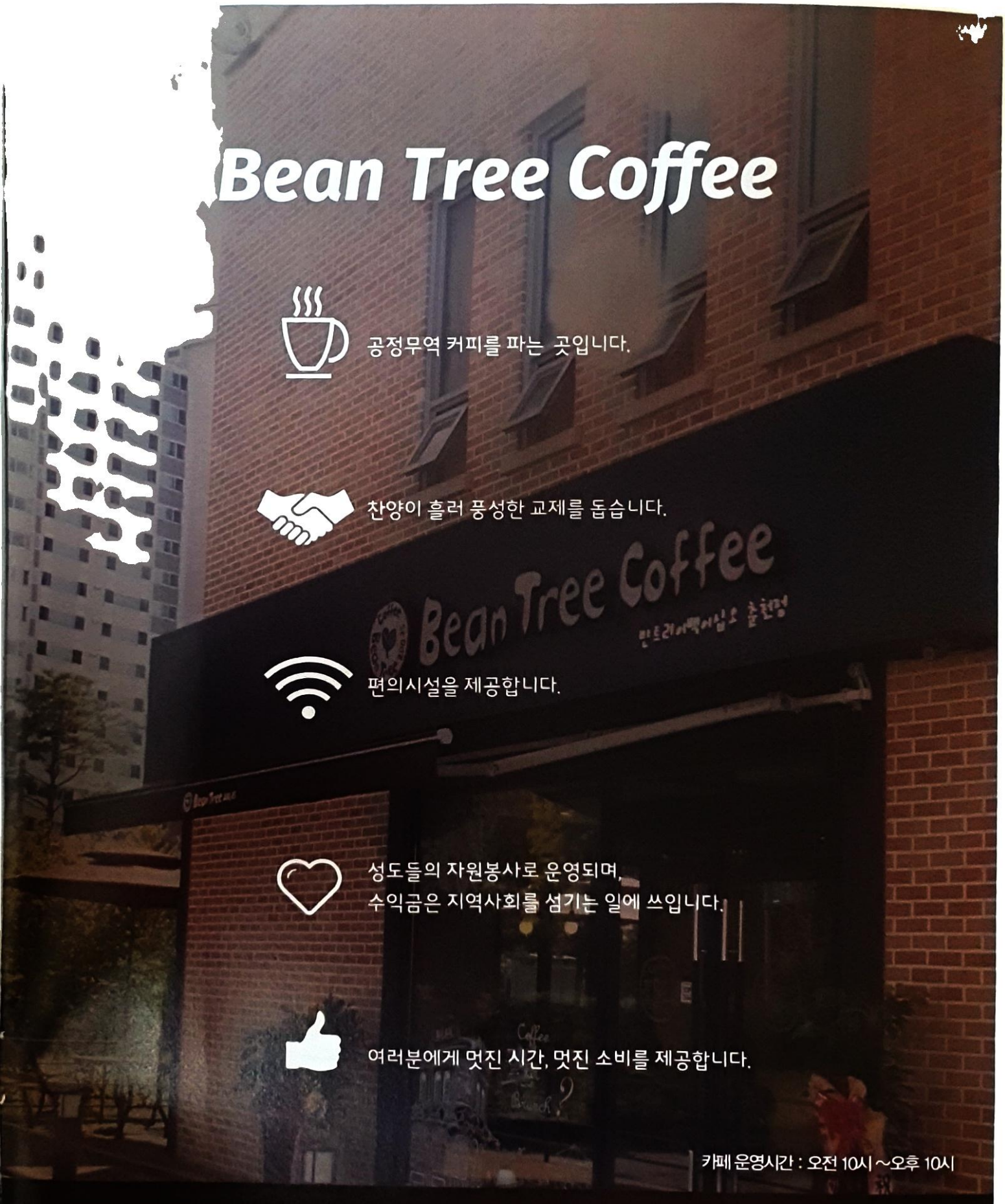
갈릴리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명성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예수제자운동 행복재가요양기관 영광한의원 춘천와이신협 성시무용단
춘천YWCA 월드비전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Bean Tree Coffee

빈트리커피
Bean Tree Cofee
음료 10% 할인

쿠폰을 절취하셔서 제시하시면
할인해드립니다.

빈트리커피 Bean Tree Cofee

춘천시 동내면 거두 3리 885 (창대교회 옆에 있습니다)
033.261.3959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2015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들을 위한

무료초청 전도중심 세미나

N+ 교회사역연구소는

2009년 1월부터 361여회 이상의 교회사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사역단체입니다.

9월 10일(목) 강 사



이 병 철 목사
춘천주향교회



김 문 훈 목사
부산포도원교회
전도! 행복한 전도자가 만듭니다!



박 재 신 목사
전주양정교회
전도! 단순함이 능력! 주보 전도지!



김 인 하 목사
N+교회사역연구소
'전도' 100% 인도 전략!!

춘천 강원지역 | 춘천주향교회

9월 10일(목) AM 9:40–PM 4:30

- 강사 : 김문훈 목사, 박재신 목사, 김인하 목사 외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396-2 ☎ 070-8633-0363

http://www. chjh.org

문의! 070.8291.7628

참석대상 2015년 제직, 전도팀, 양육팀, 구역(셀, 속), 교사 교역자부부
(전도대 훈련 및 구역 모임을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참 가 비 무료 (단, 점심식사를 포함한 교재비 5,000원 별도)
*식사 준비 관계로 교재비 입금 확인자에 한하며, 세미나 1일전까지 사전접수 마감합니다.

접 수 당일 등록은 10,000원(교재/식사 제공)이며 10인 이상 접수 시에는 꼭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비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접수 www.chnplus.net : 인터넷 접수시 교재비 10% 할인됩니다.
문자접수 010-5751-7667 : 교회명, 인원수, 입금자 성함, 참석지역을 남겨주세요.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6-301-315180 (엔플러스교회사역연구소)

주 최 교회사역연구소 | Good (C3TV)

후 원 국민일보 한국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기독공보 | 기독신문 | 기독교신문 | 기독교타임즈 | 한국도농선교회